

아프리카 커피산업 동향 *

이 혜 은 · 정 승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아프리카 경제와 커피 산업

1.1. 아프리카 커피산업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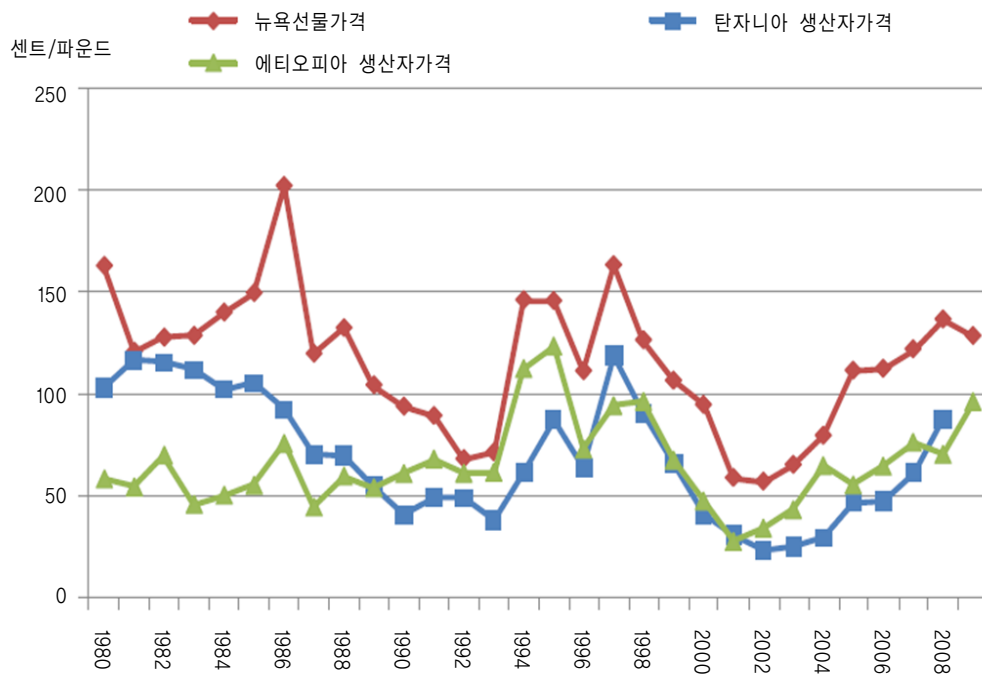
커피는 아프리카의 많은 농가에서 중요한 현금작물이지만 아프리카 전체의 커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커피 산업의 지위는 하락하고 있으며 커피가 국가의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 될 만큼 생산과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은 국제커피협정의 수출할당제도가 1989년에 결렬되면서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생산의 근대화를 진행 중이며, 베트남도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이 되는 생산국과 비교하여 아프리카의 소규모생산자는 국가의 보호나 생산 체제의 근대화로부터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탄자니아 및 에티오피아의 생산량은 세계의 4%로, 커피시장의 0.6%를 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두 국가의 생산이 선물가격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생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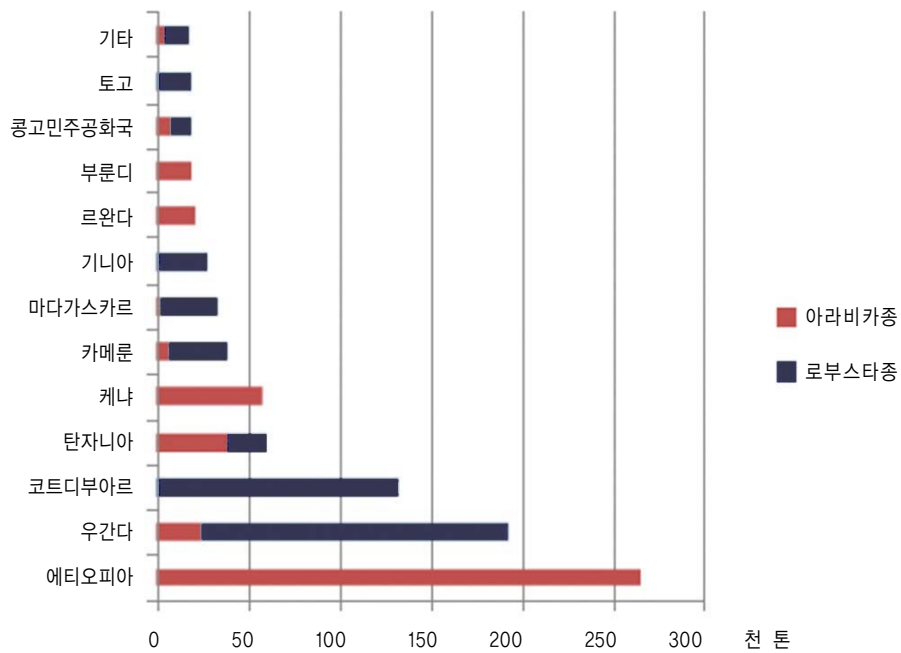
산자 가격은 뉴욕 선물가격에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양국은 정부의 관리에 따른 커피 유통으로부터 자유화된 1990년대 초기부터 중기 이후에는 특히 이 연동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농원에서 기계에 의한 수확이 대부분인 브라질에서는 50센트/파운드의 뉴욕 선물가격으로 생산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소규모농가에서 손으로 직접 채취하여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인 탄자니아에서는 150센트를 넘어야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격 수준이 50센트/파운드를 맴돌고 있고, 150센트는 몇 년에 한 번 실현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의 주요 커피 재배지가 북동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신품종의 도입이나 관개시설 정비, 기계화도 진행되면서 지금까지처럼 서리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어, 브라질의 흥작으로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커피원두의 뉴욕선물가격과 탄자니아 및 에티오피아 생산자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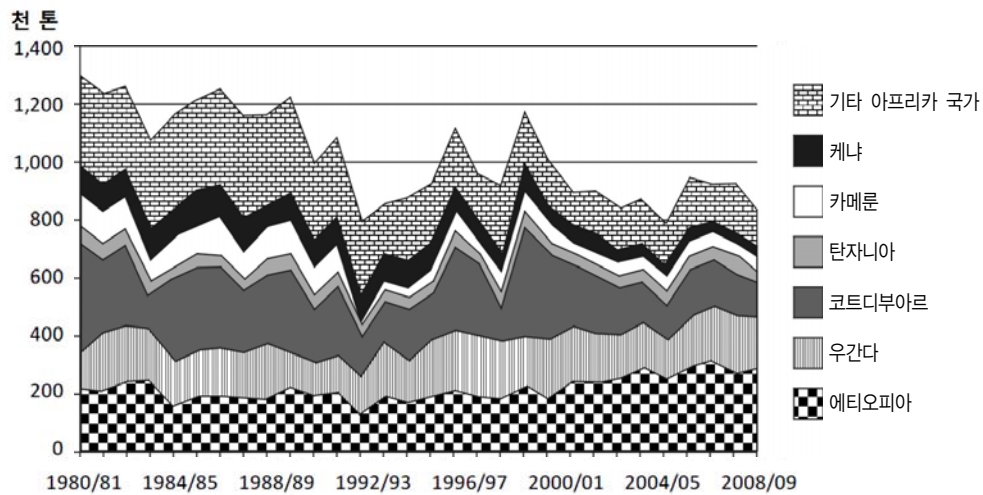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그림 2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의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생산 내역(2010/11)



자료 : USDA FAS(www.usda.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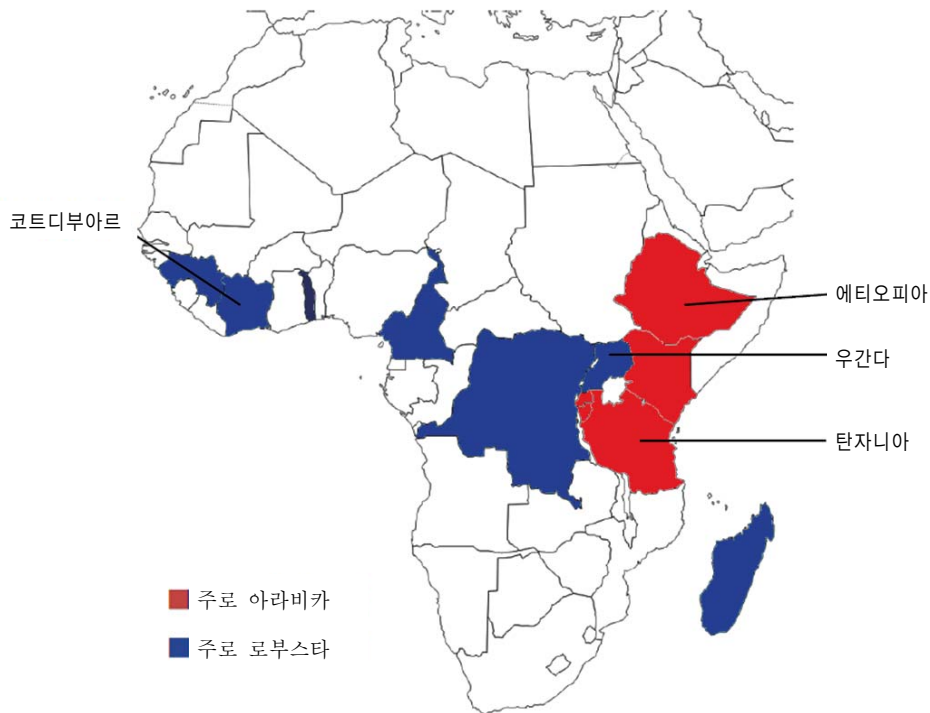
그림 3 아프리카 커피 생산량 변화(1980/81~2009/10)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더욱이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에서는 내전으로 커피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커피나무가 노령화하고 있어 커피 생산을 함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4 아프리카 주요 커피 생산국



자료 : Promar Consulting(www.promarconsulting.com).

환경 문제나 토양유출도 심각하다. 아프리카에서의 커피 생산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 집약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생산 확대는 비옥한 토지와 노동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 아프리카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비료 및 농약의 투입이나 생산 방법의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닌 주로 나무의 수와 노동력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토양의 비옥도는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농가에서는 여전히 신품종이나 비료 및 농약 등의 구입도 어려워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성은 현저히 부진한 편이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커피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커피 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농업 GDP의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커피의 생산, 가공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아프리카의 커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유화된 국제시장에서 아시아나 중남미 생산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자연 환경에 적합한 수확량이 높은 내병성 품종의 개발 연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공급망에서의 사회기반시설과 물류에 대한 투자, 품질관리와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등의 향상, 기술지도 등을 통한 소규모농가와 생산자 조직의 역량개발, 투입재의 구입 등을 위하여 소규모농가가 이용 가능한 융자 제도의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1.2. 아프리카의 국가별 커피 생산 개요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50%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에서 생산되고 있다. 뒤를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이 22%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전 세계의 11%이다.

아프리카의 생산자는 소규모농가가 대다수이지만, 일부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¹⁾도 존재한다. 서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농가가 커피 단일재배를 하고 있다. 한편, 동아프리카에서는 소규모 밭에 다른 작물과 함께 커피를 재배하는 간작(間作)²⁾이 많은 편이다.

2009/10년 아프리카에서는 22개 국가가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2009년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134만 자루(약 81만 톤)이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등 상위 3개국이 아프리카 전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대상국의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다. 아라비카종의 원산국인 에티오피아에서는 남부 고원 지대 등에서 아라비카종만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의 약 95%가 소규모농가에 의해

1) 플랜테이션(plantation): 서구 제국이 열대 · 아열대 지역으로 농업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루어 놓은 농업의 한 형태를 일컫음. 서구 제국은 16~17세기부터 식민지의 농업 개척 과정에서 현지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기호품과 공업 원료를 단일 경작하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식민 취락화(植民聚落化)를 뜻하는 플랜테이션이란 말로 불리게 되었음. 농작물은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고무 · 차 · 삼 · 커피 · 카카오 · 사탕수수 · 바나나 · 담배 등이 있음. 현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의 독립 과정에서 국유화되어 현지민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짐. 또한, 최근에는 경영 안정상 단일 재배에서 오는 가격 불안정, 흉작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작물을 경작하는 다각 경영(多角經營)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뚜렷함. 대농원 제도에 해당되는 브라질의 커피 농장인 파젠다(fazenda)와 동남아시아의 고무 농장인 에스테이트(estate)가 대표적인 플랜테이션에 속함.

2) 간작(intercropping, interplanting, 間作): 주가 되는 작물의 사이에 다른 종류의 작물을 심어 가꾸는 것.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 플랜테이션도 보인다. 에티오피아는 커피를 독일이나 미국,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한 적도 많았지만, 잔류 농약문제 등의 발생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격감하였다.

2위인 우간다와 3위인 코트디부아르는 주로 로부스타종을 생산하고 있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소규모농가에 의해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예외적으로 비교적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 로부스타종을 재배하고 있지만, 커피 시들음병(萎凋病, Coffee Wilt Disease)³⁾의 발생으로 산업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우간다는 커피의 대부분을 독일에 수출하고 있다. 상아해안(象牙海岸)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최대의 카카오 공급국이면서 커피도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역시 소규모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 유럽 각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생산량의 5%를 차지하여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아라비카종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로부스타종도 생산하고 있다. 역시 생산의 90% 이상이 소규모농가에 의한 생산이다. 일본이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기타 미국,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2. 탄자니아의 커피산업

2.1. 탄자니아 커피산업의 특징과 중요성

탄자니아의 주요 주식작물은 메이즈(maize)⁵⁾, 카사바, 쌀, 밀, 당인피(唐人稗)⁶⁾, 손가락 기장(四石稗)⁷⁾, 수수, 요리용 바나나이다. 농가는 단일 주식작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복수의 주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작물 가운데 메이즈의 경작면적이 310만ha로 최대이며 뒤를 이어 카사바와 쌀의 경작면적이 70만ha 정도이다. 생산량은 1998~2008년 평균 카사바가 32%, 메이즈 18%, 감자류 17%이었다.

3) 식물이 뿌리줄기의 일부분의 도관(導管)이 곤충 등의 침해를 입어서 수분의 운반이 방해되어 잎·줄기가 시들어 마르는 병.

4) 상아해안(Ivory Coast, 象牙海岸): 서아프리카에 면한 코트디부아르의 해안. 15세기 후반 유럽 열강이 상아와 노예를 얻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상아 거래의 중심지가 되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이름의 기원이 됨. 코트디부아르 또는 코트디부아르해안이라고도 함.

5) 유럽에서는 사료작물로 이용되나 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식용으로 더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완숙되기 전에 수확하여 간식으로 이용하나, 중부 산간지나 북부지방에서는 완숙 후에 수확하여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음.

6) 당인피(唐人稗, 학명 Pennisetum glaucum): 벼과 식물. 수크령과 비슷한 종류임.

7) 사석피(四石稗, 학명 Eleusine coracana (Linn.)): 손가락 기장. 아프리카가 원산지임.

한편 환금작물(換金作物)⁸⁾의 재배면적은 면이 40만 ha, 커피가 11만ha, 사이잘삼(sisal hemp)⁹⁾가 5.5만ha, 사탕수수가 2.3만ha, 차가 1.9만ha이다. 생산량은 1998~2008년 평균 커피가 6%를 차지하였는데 기타 면, 설탕, 차, 캐슈너트(cashew nut), 담배, 사이잘삼 등이 주요 환금작물이다.

탄자니아산 커피의 90%이상은 소규모농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40만호 이상의 농가가 커피 산업에서 직접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커피 산업은 간접적으로 240만 명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추계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거의 모든 국토가 열대기후에 속하며 일부 고지대는 온대 기후에 속한다. 중앙부가 가장 건조한 관목지이며, 그 주변에 열대건조림이 펼쳐져 있다. 주변부는 습기가 가장 많은 곳이다. 커피의 주된 산지인 북부나 남부, 서쪽 호수지역은 산악지역 혹은 고지대에 속한다.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주(州)는 강수량의 연교차가 대단히 크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모시(킬리만자로주의 주도(州都))의 연강수량을 보면 최대 1,200mm, 최소 330mm로 해에 따라 강수량이 900mm 가량 차이가 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연구소가 있는 킬리만자로주 라문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1935년 이후, 연평균 2.6mm씩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킬리만자로주는 전통적 관개시설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는 소규모농가의 커피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산량의 감소 및 품질 악화를 야기한다.

탄자니아에서는 국토면적의 10%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관개시설이 정돈되어 있는 것은 농지 가운데 3%뿐이다. 농지의 대부분은 소규모농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중대형 규모의 농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면적의 약 50%가 경작 가능한 땅이지만, 그 가운데 개발 잠재성이 높은 토지는 5% 정도이다.

탄자니아의 주된 커피 산지는 북부고지대의 세 곳이다. 북부고지대와 남부고지대에 서는 주로 아라비카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수세식 가공을 하고 있다. 호수 서쪽지역에 서는 주로 로부스타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비수세식으로 가공하고 있다.

아라비카종의 주산지로 탄자니아를 대표하는 킬리만자로 커피의 고향이 북부고지대의 킬리만자로산(Kilimanjaro Mt.)의 산간부이다. 이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차가족(chagga族)이다. 1870년대에는 탄자니아에 커피 재배가 이루어진 이래 1893년 커피 재배의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지며 킬리만자로산에 처음으로 커피

8) 환금작물(cash crops, 換金作物): 돈벌이 작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하여 재배한 작물.

9) 사이잘삼은 여러해살이풀로 외관은 용설란과 매우 흡사함.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람.

피나무가 심어졌다. 킬리만자로산에 살고 있던 차가족은 커피가 환금작물로서 유용한 작물임을 알게 되면서 커피재배를 시작하였고, 1932년에는 14,000가구 이상의 차가족 농가가 커피 재배를 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가 반복되는 커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최근 많은 사람들이 커피 재배를 포기하였으며 다른 작물 재배를 시작하고 있다.

킬리만자로주와 함께 탄자니아의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의 산지의 하나인 남부지역에는 1927년 최초로 커피가 들어와 1933년에 최초로 수확이 개시되었다. 현재 연간 1만~1만4,000톤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소규모농가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커피 재배 농가는 4만2,000호 이상의 소규모농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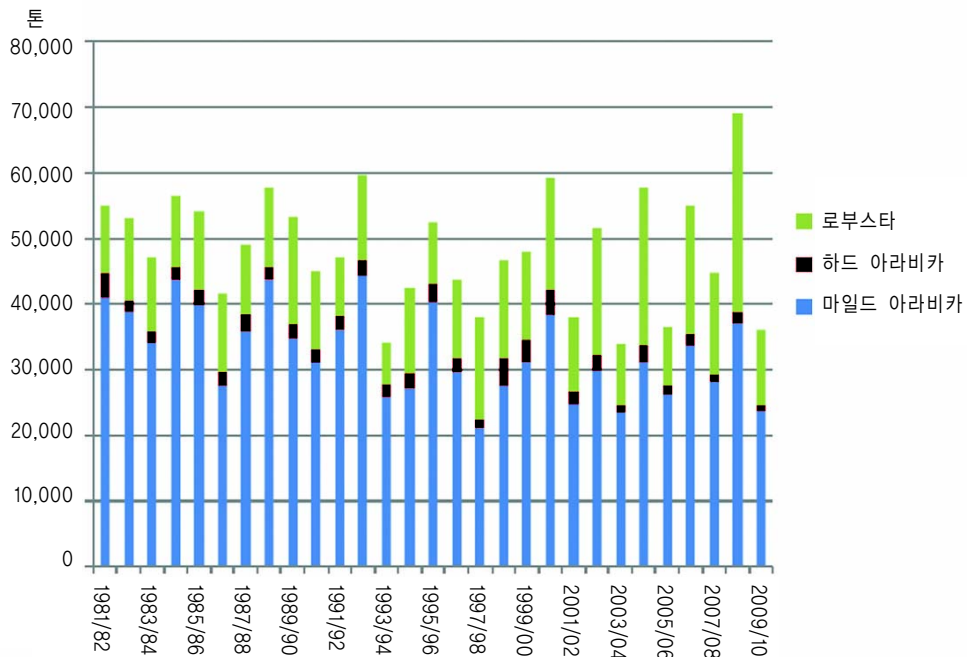
한편 호수의 서쪽지역은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로부스타종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기타 하드 아라비카(Hard Arabicas)도 생산하고 있다. 로부스타종은 탄자니아의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원산지이며 이전부터 로부스타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야생의 커피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씹어서 먹을 수 있어 의식(儀式)에 사용되고 있었다. 로부스타종이 아라비카종에 비하여 재배가 용이하여 수확량도 많고 하드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간에 가격차가 없어 로부스타종의 재배 비율이 높다. 호수의 서쪽지역은 표고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아라비카종을 재배할 수 없으며 내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연안부에서 멀어 정보전달이 어렵고 수송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로부스타종에 커피 시들음병이 발생하고 있어, 발병한 나무를 소각하는 방법 이외에는 감염을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2. 탄자니아 커피생산량과 가격 동향

탄자니아의 커피원두 생산량은 재배되는 해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으로 2008/09년에는 7만 톤에 가까운 생산량을 기록한 반면 2009/10년에는 3만6,000톤을 기록하면서 거의 반으로 줄었다. 커피는 원래 격년결과로 나타내는데 앞 뒤 해의 차이가 크지만, 탄자니아는 관개 설비가 불충분하고 노목화(老木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큰 점 등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탄자니아에서는 주로 마일드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기타 약간의 하드 아라비카종이 있다. 변화를 살펴보면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킬리만자로주에서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부 남부에서의 생산 증가가 이를 보충하고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의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탄자니아 커피 생두의 종류별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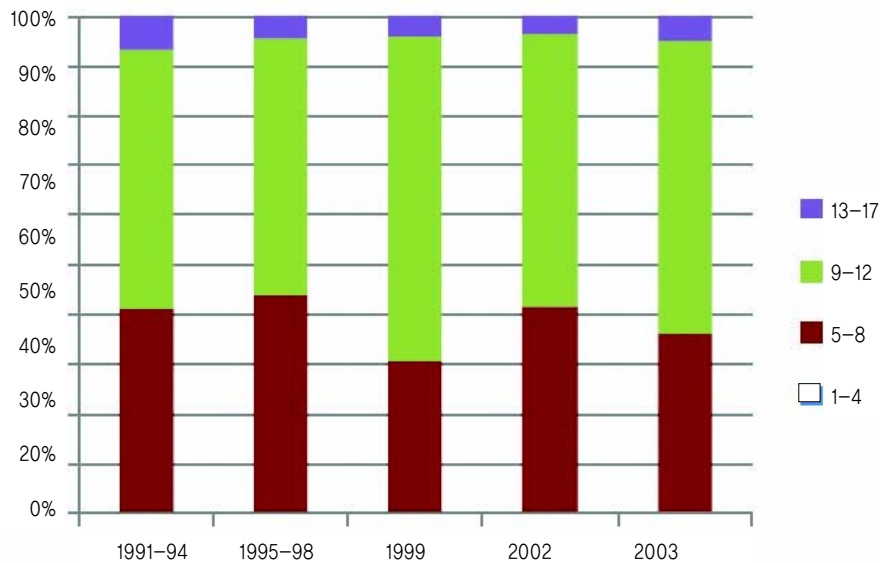


자료 : Tanzania Coffee Board 생산량 통계, 2011.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생산은 주산지이었던 킬리만자로주의 생산량이 1981/82년의 2만 톤에서 2009/10년의 3,700톤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초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남부의 두 개 주(州)의 생산량이 2만 톤까지 증가하면서 감소 추세에 다소 제동이 걸렸다. 마일드 아라비카종과는 대조적으로 로부스타종의 생산량은 1990년대 중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00톤에 달하여 로부스타종이 커피생두 생산량의 30% 넘었다. 로부스타종은 그 99% 이상이 카게라주(Mkoa wa Kagera州)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로부스타종의 생산량 증가는 카게라주의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다.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품질은 1990년대 전반부터 2003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최고품질의 등급 1~4는 대단히 드물고 항상 1%가 되지 않고 있으며, 등급 5~8의 비율은 30~40%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그림 6 경매에서의 마일드 아라비카 취급량 등급별 비율의 변화



자료 : 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 Bureau for Agricultural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 2005 "Final Report on Coffee Baseline Report" .

커피등급의 구분은 우선 둥근 구멍이 뚫린 체(스크린)를 사용하여 원두의 지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스크린 18(지름 7.14mm)을 통과하지 않는 가장 큰 원두를 AA라고 하고, 스크린 14(지름 5.56mm) 이상은 C까지, 원두가 큰 순서대로 AA, A, B, C의 등급이 된다. 이 4등급에서 둥근 원두(PB)와 코끼리원두(2개의 원두가 합체한 원두, E)는 제외되며 C미만의 소형 원두는 T로 분류된다. 이러한 크기와 형태에 의한 등급을 구분한 후 중량(밀도)에 의한 등급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4등급에서 약한 풍압으로 날려진 최경량원두가 F의 등급이 되며, 다음으로 AA와 A 중에서 강한 풍압에서 날려진 경량원두가 AF의 등급이 된다. 동일하게 B 중에서 날려진 원두가 TT의 등급이 되며, C 중에서 날려진 원두가 T가 된다. 크기와 무게 각각의 분류에 의해 T로 구분된 원두를 합쳐서 TEX의 등급이 된다. 날리지 않은 중량원두는 그대로 AA에서 C까지의 등급이 된다. 이렇게 하여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생두는 AA, A, B, C, PB, E, AF, TT, TEX, F의 10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가공공장에서는 전자색선별기와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서 손으로 선별(핸드피킹, HP)하여 결점원두(발효 원두, 검은 원두 등)의 제거가 이루어지며 결점원두에는 UG의 등급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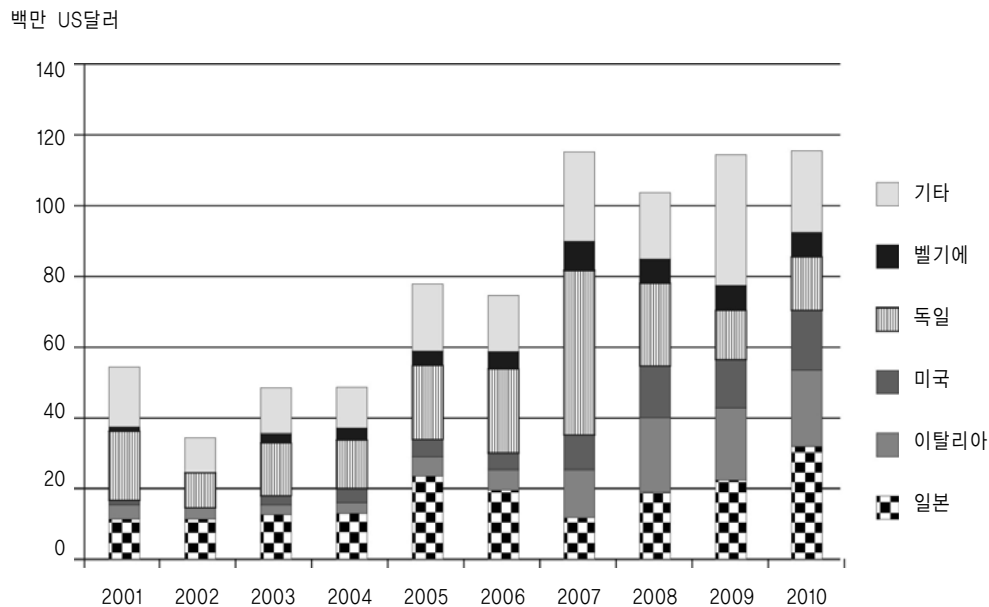
2003/04년 이후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물리적 품질(크기 및 중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면, 북부에서는 2007/08년 이후 AA, A의 대형원두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B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의 원두가 증가하고 있다. AA, A의 대형원두의 비율은 항상 50%를 밑돌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남부에서는 2003/04~2009/10년 AA, A의 대형원두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B에 만족하지 않는 소형원두가 줄어들고 있다. AA, A의 대형원두의 비율은 항상 50%를 넘고 있다. 킬리만자로주의 커피 가운데 등급 1~7의 비율은 2001/02년에는 30% 정도이었지만 2007/08에는 80%를 넘었으며, 북부산 마일드 아라비카종은 물리적 품질은 좋지 않지만 풍미 등 품질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남부산은 북부산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산 생산자 가격이 북부산을 웃도는 해도 나오고 있다.

2.3. 탄자니아 커피 수출

탄자니아의 수출 총액은 1990년대 후반까지 완만하게 성장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8년에는 광산물 수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5억6,000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약 5배 이상 확대되었다. 농산물수출액은 부진하였는데 2007년과 2008년에 증가하여 10억 달러

그림 7 탄자니아 커피수출액 변화



자료 : ITC,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에 달했지만,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수출액의 비율은 1985년 75%에서 2008년에는 31%로 저하되었다.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커피, 면, 캐슈너트, 담배, 차, 사이잘삼 등이다. 커피는 20년 전에는 농산물 수출액의 43%, 수출 총액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었지만, 현재는 각각 11%, 3%로 중요도는 다소 저하되었다.

탄자니아에서는 생산된 커피 가운데 대략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최대의 상대국은 일본이며 기타 미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이 주요 수출 상대국이다. 수출량은 3만 톤에서 7만 톤의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커피 원두 가격의 변동으로 수출액은 2007년에서 2010년에는 1억~1.2억 달러 전후로 안정되었다.

탄자니아의 마일드 아라비카 원두의 주요수출 상대국은 일본과 독일이다. 이 두 국가는 경쟁 관계에 있어, 일본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나면 독일에 대한 수출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일본에 대한 수출량이 줄어들면 독일에 대한 수출량은 늘어난다. 양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005/06년까지 70% 전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어, 2006/07년에는 60%까지 감소하였다. 이 각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줄어들 일은 없으며 일정량을 계속하여 수출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에 탄자니아산 커피가 정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일드 아라비카종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일본이 디플레이션(deflation) 불황으로 높은 가격의 원두에서 평균 가격의 원두로 바뀌고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평균 가격을 밑도는 원두에서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원두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가격이 낮은 원두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탈리아 등은 높은 가격의 원두를 수입하여 지금까지 일본이 수입하고 있었던 고급 원두가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4. 탄자니아 커피산업의 과제

탄자니아에서는 40만호 이상의 농가가 커피 생산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커피 산업은 간접적으로 24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킬리만자로주에서는 커피의 생산량과 품질(특히 크기, 중량과 같은 물리적 품질)이 저하되고 있어 농가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포함하여 킬리만자로주에서의 커피 산업의 과제를 유통 단계마다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킬리만자로주에서의 커피 생산량 저하의 최대의 원인은 가격저하에 의한 소규모농가의 생산 포기이다. 많은 소규모농가가 커피에서 바나나나 옥수수, 원예작물로 재배를 전환하고 있다. 차가죽의 토지상속에 따라 커피 밭이 세분화되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젊은 층들은 농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직업을 바꾸고 있다. 젊은이가 마을을 나가면서 커피 생산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져 가공에 의한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커피나무가 노쇠하여 단위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커피 가격의 저하와 농업투입재의 가격 상승으로 커피나무에 농약 등이 사용되지 않아 생산량이나 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 커피 재배에 관한 전문적인 농업지도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커피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강수량의 연교차가 크고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생산량의 감소와 품질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농가가 수동식 과육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어, 품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강이나 토지에 오염된 물이 사용되고 있어, 커피원두의 풍미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업자의 독점과 협동조합연합회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자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의 라이선스를 소유하여 독점으로 연결된 다국적기업에 의해 경매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품질에 따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소규모농가가 커피의 유통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도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60% 이상의 농가가 1차 가공에서 강이나 연못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부지역과 같이 대부분의 농가가 수동식 과육제거기를 사용하고 있다.

3. 에티오피아 커피산업

3.1. 에티오피아 커피산업의 특징과 중요성

에티오피아 커피 산업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종의 원산국이며 에티오피아의 남서지역 및 남동지역이 원산지이다. 현재에도 천연 커피가 해발 1000m부터 2000m 지역의 열대우림에서 자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아랍 세계에 전파된 것은 과거,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것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8세기에 라틴어에 의한 분류가 식물에 적용되었을 때, 현재 예멘에서 되었던 에티오피아 원산의 커피가 아라비카라고 불리웠다. 또한 모카 커피라는 명칭은 에티오피아의

남동지역 원산 커피의 호칭으로 이용되었다. 단, 일부에서는 아라비카 커피라는 호칭이 아닌,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의 명칭을 나타내는 아비시니아 커피(Coffea Abyssinia)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원산의 커피는 유전자형이 대단히 다양하다. 그 다양성은 품미, 내병성, 카페인 농도 등에 의한 신품종 개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대단히 가치가 높다. 게다가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병해나 자연 재해 후, 각 지역의 커피나무를 재생할 경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현재, 수확되고 있는 커피의 종류는 몇 백 종류에 달하며 각각이 독자적인 향기, 맛, 색 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에티오피아의 연구소는 커피나무의 유전자원을 해외의 각국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피나무는 토양, 일조량, 강수량, 기온 등의 자연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자연 환경을 원산지로서 하는 커피나무가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품질의 원두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림에 자생하는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고, 현재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면서 커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티오피아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최대 수출 작물이며 수출액에 있어서도 최대의 수출품이다. 커피는 세입이 가난한 에티오피아 정부에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블랙골드(Black Gold, 검은 황금)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커피 생산국과는 달리 에티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커피의 음용 습관이 있는 소비국이기도 한다. 에티오피아 농가는 하루에 여러 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커피를 향응하는 관례도 있다.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의 약반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커피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특히 수출용 커피와 관련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커피의 유전적 다양성은 상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상업화할 것인지, 주로 수출용의 커피를 대상으로 어떻게 유통을 개선할 것인지, 커피의 판매에서 정부는 어떻게 세입을 얻을 것인지, 가격상승을 어떻게 생산자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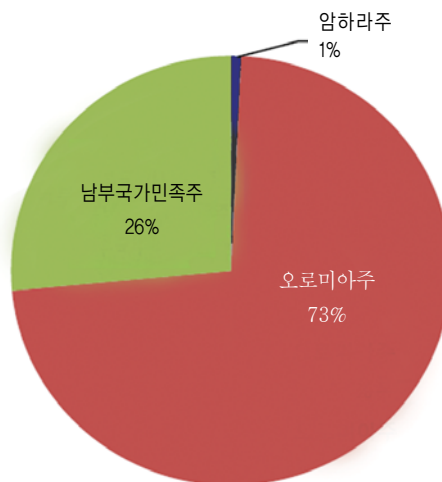
에티오피아는 최빈국의 하나이며, 2010년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최하위에서 12번째에 위치한다. 농업에 의존하는 에티오피아 경제는 계속되는 가뭄과 낮은 생산성으로 고민하고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안 연평균 8.4%의 GDP성장을 기록하였다. IMF의 예측에

서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에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농업은 에티오피아 GDP의 45%를 차지하며 고용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정치, 경제, 치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수출 작물이지만, 주요작물은 국토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자급 작물이다. 주요작물의 대부분은 곡물이며, 옥수수나 테프(teff)¹⁰⁾ 등이 있다.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곡류, 콩류, 유지종자, 채소, 근채류, 사탕수수, 과일 등이 있으며 기타 커피나 카트(Qat, Khat), 호프 등이 있다. 2009~2010년 커피는 에티오피아 경작 면적의 3%에 해당하는 395,003ha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의 생산량은 과거 10년 동안 10만 톤 정도 증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국제 커피기구에 보고된 통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커피의 생산량은 2007년 27만 톤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량은 농업농촌개발성에 의한 연차조사에 의해 추계되고 있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이 농장에서 직접 소비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커피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의 개설, 잔류 농약문제에 따른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

그림 8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량의 지역별 내역



자료 : Ethiopian Central Statistics Agency, 2010.1.

이었다. 기후불안정으로 인하여 2008년 후반 커피원두의 수확이 감소한 것 도 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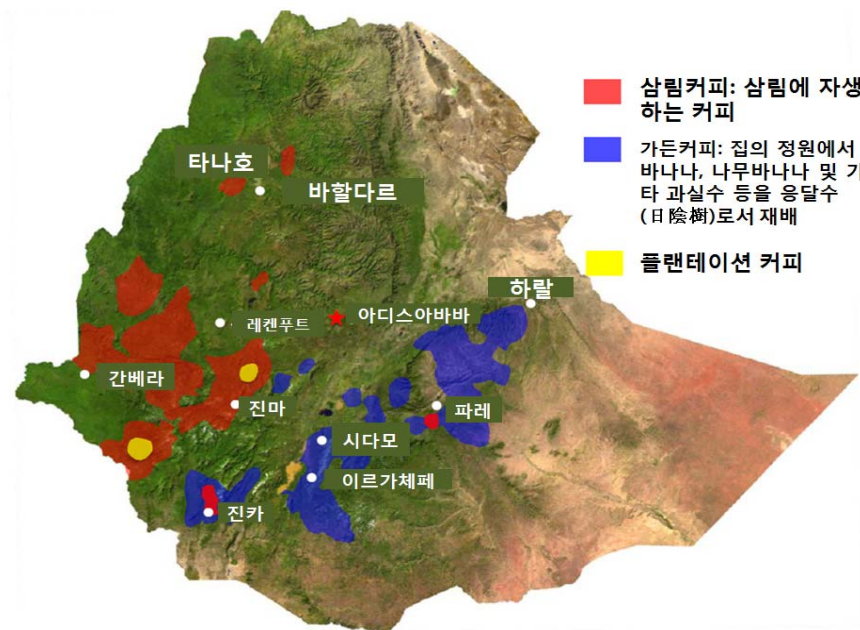
10) 학명 *Eragrostis abyssinica*: 벼과(科) 크령(참새크령)속(屬)의 초본; 향기가 있으며, 관상용·식용으로 재배됨. 에티오피아 원산, 북미로 이입(移入)되었음.

이다.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가 2008년 후반에 개설되어 일부 도매업자는 동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커피의 공급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생산 커피의 대부분은 주로 오로미아주(州)와 남부국가민족주(州)에서 연간 강수량이 1500~2000mm 이상, 표고 1500m~2200m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오로미아주는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심 생산지다. 두 개 주는 에티오피아의 남서부와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커피는 소규모농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환금작물의 하나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환금작물은 카트(Qat, Khat)라 불리는 각성 작용이 있는 식물이다. 카트는 암페타민(amphetamine)¹¹⁾과 흡사한 각성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감이나 각성감을 초래한다. 카트는 에티오피아 국내에서도 소비되고 있으며 소말리아나 예멘 등 이웃 국가들은 카트의 수요가 높고, 카트 무역은 에티오피아에 많은 외화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카트 무역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그림 9 생산방식별 주요 커피 생산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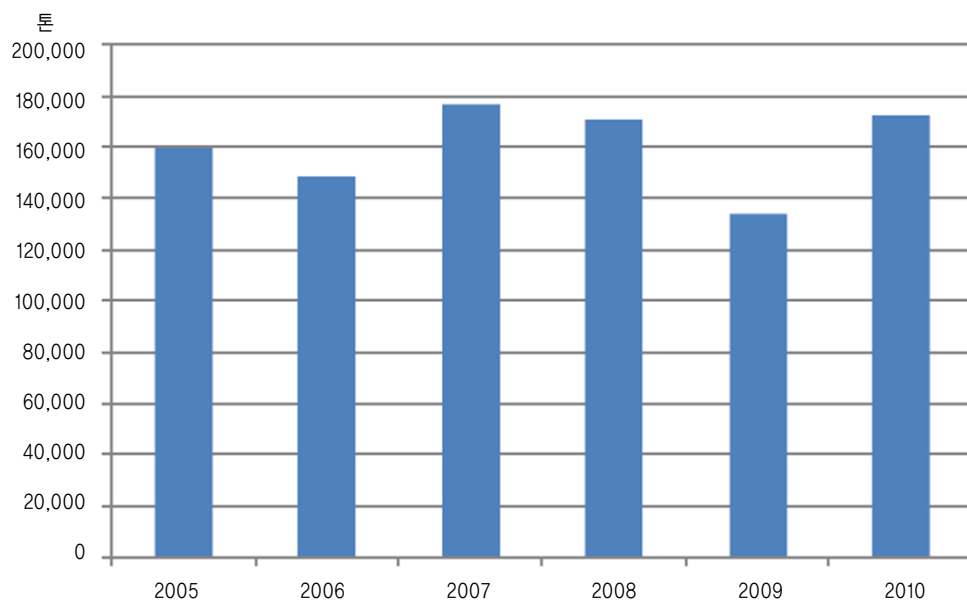
자료 : Ethiopian Central Statistics Agency, 2010.

11) 무색 액체로서 중추 신경 자극제로 사용하며, racemic 1-phenyl-2-aminopropane과 상품명인 Benzedrine으로도 알려져 있음.

에티오피아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카트는 금액 기준으로 네 번째의 수출품목이지만, 무역의 일부는 통계로부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카트 수출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무역액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소말리아나 예멘에 가까운 하랄 지방 등 에티오피아 동부에서는 카트의 가격이 커피의 가격을 상회했을 경우, 가든 커피의 농가는 커피 재배에서 최대 연 4회 수확이 가능한 카트 재배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삼립 커피나 플랜테이션 커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든 커피의 농가에서는 카트 재배로 전환할 때, 커피나무를 뽑거나 커피의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카트의 가격상승은 일차적인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커피나무의 묘목을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묘목에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커피와 카트는 직접적으로 대체되는 환금작물은 아니지만, 이 가격은 농가가 어느 작물에 자원을 투자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3.2.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

그림 10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량 변화



자료 : Ethiopia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11.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의 하나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그런 것 같이, 에티오피아에서도 환금 작물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커피의 수출액이 상승세로 증가할 뿐, 유지작물, 콩류, 꽃 등의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어, 수출액에 차지하는 커피의 비율은 축소하고 있다. 이는 커피의 생산량증가와 품질향상을 통해서 수출에 의한 세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수출에서 차지하는 커피의 비율을 줄여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커피 이외에 5개의 주요한 수출품목(유지작물, 금, 카트, 꽃, 콩류)이 있으며 이 밖에 가축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총 수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하여 커피의 수출액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비율은 지금까지 가장 낮은 27%이었다. 그러나 커피와 기타 6개 주요 수출품목에서 수출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은 여전히 1차 산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대단히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며 가장 품질이 좋은 그레이드 1~5의 커피는 모두 수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과거 5년간 커피 수출량은 13만 톤~18만 톤의 사이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커피 수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일본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에티오피아의 주요 커피 수출 상대국별 수출액(2010)

국가명	금액(US달러)
1. 독일	174,751,642
2. 사우디아라비아	92,022,168
3. 미국	47,117,583
4. 벨기에	38,470,157
5. 이탈리아	31,755,082
6. 일본	21,080,971
7. 프랑스	20,928,505
8. 수단	17,667,542
9. 스웨덴	13,968,421
10. 스위스	11,391,135
기타	59,153,745
합 계	528,306,952

자료 : Ethiopia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11.

현재 에티오피아 커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은 독일이며,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다. 예전에 일본은 독일의 뒤를 잇는 제2위의 수출 상대국이었지만, 2008년 잔류 농약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후 수출량이 크게 줄어 2010년 실적에서는 제6번째의 수출 상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 시장은 고품질 원두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무역 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수출되는 커피 원두의 90%가 산지별, 그레이드(Grade)별로 볼 때 10종류로 이루어진다. 주요한 산지 및 그레이드는 레첸푸티 그레이드 5, 진마 그레이드 5, 시다모 그레이드 2이며, 이 세 종류는 수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10개 종류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시다모 그레이드 3(평균 4.09 달러/kg)이며, 이르가체페(Yirgacheffe) 그레이드 2(평균 4.35 달러/kg), 최저가격인 것은 진마UG이다(평균 1.91 달러/kg). 수출량은 극히 적은 편인데, 모든 종류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은 것은 이르가체페(Yirgacheffe) 그레이드 1 (평균 5.28 달러/kg), 림 그레이드 3 (평균 5.00 달러/kg) 및 일부 공정무역(fair trade) 커피(평균 5.18 달러/kg)이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거의 모든 커피를 생두로 수출하고 있으며 볶은 원두의 수출은 극히 소량이다. 고품질 원두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엄격한 정책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내에는 배전(焙煎)¹²⁾의 인가를 받은 기업이 1개 사(社)밖에 없다.¹³⁾

한편 에티오피아에서는 배전에 의한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출용 국내 배전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자국산 커피원두를 볶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다른 생산국으로부터도 생두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는 없는 지역 블렌드(blend)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배전업자, 수출업자, 협동조합 및 정부는 이웃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새로운 시장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수단은 이미 주요 수출처가 되고 있으며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나 러시아도 높은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현재 영국 브랜드인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도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관계자도 있다. 현재 중국은 콜롬비아 등으로부터 커피 원두를 수입하고 있지만, 장래 무역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이미 에티오피아의 커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볶은 원두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기업인 알포즈(Alfoz)가 일본 수출용 이르가체페(Yirgacheffe) 커피를 수출

12) 커피 원두 등을 볶는 것.

13) 볶은 원두의 일부는 수출되며 일부는 에티오피아 국내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하는 것을 목표로 배전·분쇄·포장 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일본 업체와 맺고 있다.

3.3. 에티오피아의 커피재배 형태

에티오피아의 커피 재배에는 삼림 커피, 반삼림(半森林) 커피, 가든 커피, 플랜테이션 커피라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재배 방법별 생산량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반삼림 커피와 가든 커피가 가장 많은 생산량으로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플랜테이션 커피와 소규모농가에 의한 근대적 재배를 합쳐서 20%, 가장 적은 삼림 커피가 10%라고 추측하고 있다.

소규모농가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이 없고, 농업 투입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커피는 그 95%가 유기재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기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커피는 얼마 되지 않는다. 플랜테이션 재배에서는 정기적으로 화학 비료가 사용되고 있다.

3.3.1. 삼림 커피

에티오피아에는 원시의 천연 커피나무가 지금도 열대림에서 생육하고 있다. 이들을 삼림 커피라고 부른다. 이러한 천연 커피나무에서는 커피원두를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전 다양성은 대단히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유전자는 세계적으로도 값진 천연자원이다. 삼림 커피는 열대림에 자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숲은 사람에 의한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숲은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남부와 남서부지역에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삼림 커피는 열대림의 높은 나무 밑에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등 다른 각국의 삼림 커피와 비교하여 일조량이 적은 편이다.

삼림 커피의 수확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며, 세대수입의 20~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삼림 커피의 수확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삼림 내에 머물며 생활을 해야 한다. 생산성은 매우 낮는데 평균 50~150kg/ha정도이다.

삼림 커피의 높은 경제적 가치는 열대림 및 그곳에 자생하는 커피나무의 유전자자원의 보전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기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와 진마농업연구센터는 발견된 삼림 커피의 유전자형의 특징과 보전을 하고 있다. 발견된 다양한 유전자형의 커피 중에는 카페인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 등도 있어, 그 경제적 잠재성은 크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미 3개의 유전자 뱅크가 설립되고 있으며 참가형 삼림관리를 통하여 지역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참가형 삼림관리는 보전 및

이용,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나 기타의 이해관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3.3.2. 반삼림(半森林) 커피

삼림 커피와 반삼림 커피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도 어디까지가 삼림 커피이고 어디까지가 반삼림 커피인지의 차이를 알고 있지는 않다. 반삼림 커피는 마을이나 밭 가까이 위치하는 등 삼림 커피에 비해 사람에 의한 교란이 쉬운 편이다. 반삼림 커피도 열대림의 나무 밑에 생육하고 있는데 풀베기나 숲의 벌채, 묘목의 이식 등 사람에 의한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세대가 어느 부분의 반삼림 커피를 수확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마을의 촌장(村長)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진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삼림 커피의 생산성은 삼림 커피와 비교하면 높은 편으로 생산량은 100~200kg/ha 정도이다. 반삼림 커피의 유전적 다양성은 삼림 커피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반삼림 커피는 지역 주민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재래종이다.

3.3.3. 가든 커피

가든 커피는 집 주위나 마을의 주변에서 재배되고 있는 커피이다. 가든 커피는 삼림 커피의 묘목을 이식한 것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종을 심은 것 등이 있다. 또한 원래 삼림 내에 자라고 있었던 커피나무였는데 그 삼림이 나누어지면서 그 주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든 커피가 된 것도 있다. 이러한 가든 커피는 응달수(日陰樹 Shade tree)¹⁴⁾가 적어 과실수나 기타 작물 등과 간작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농가의 밭은 0.5ha 정도이며, 삼림 커피 등과 비교하면 재배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은 400~500kg/ha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3.4. 플랜테이션 커피

플랜테이션 커피와 소규모농가에 의한 근대적 재배 플랜테이션 커피가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지만, 플랜테이션 커피는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생산성은 450~570kg/ha로 가장 높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국영 플랜테이션이다. 플랜테이션에서는 식수, 재배, 가공까지 모두 공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 추적제(traceability)가 유지되고 있어, 매입업자에게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응달수(日陰樹 Shade tree)는 커피를 재배할 때 잎이 넓고 큰 나무를 같이 심어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를 말함.

3.4.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공 및 유통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사람 손에 접촉하기 전까지는 최고품질일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확이나 가공 기술이 미숙하여 품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커피의 70~80%가 비수세식(건조식)이며 20~30%가 수세식이다. 수세식으로 가공한 것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어 미국 등에서는 수세식을 좋아하지만, 일본에서는 독특한 풍미가 살아있는 비수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세식을 증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의 1차 가공은 커피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생산자에게 수확 방법에서부터 보존 및 가공 방법에 이르는 공정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빨갛게 익은 열매만을 수확하고, 건조시킬 때에는 지면에 펼쳐 건조하는 것이 아닌 대나무 그물망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존 방법의 문제로 농민이 커피 열매를 보존 시 폴리에틸렌의 지루나 다른 작물에 사용한 마자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존으로 인하여 다른 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커피에 혼입될 위험이 높아진다.

커피는 수확된 후, 소규모농가의 마당에서 태양 열에 의해 건조되거나 수세식 가공 시설로 가져온다. 이러한 소규모농가에 의한 1차 가공으로부터 보존, 운반, 2차 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가치사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개발성이나 무역산업성,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CX)에 의한 지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관계자 모두에게 식품안전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의 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커피를 운반하는 트럭의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통 과정에서의 기타 문제로서 매입업자가 다른 품질의 원두를 섞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품질이 낮은 원두에 품질이 좋은 원두를 섞어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고품질 원두에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품질이 다른 원두를 섞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커피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의 예로 커피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매뉴얼의 작성을 들 수 있다. 농업보급국은 동 매뉴얼에 따라 농민에게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업보급원은 매입업자에게 마자루의 사용방법이나 품질의 다른 원두를 섞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 정부 담당자가 추가적인 지도를 하여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3.5. 에티오피아 커피산업의 과제

에티오피아 경제는 최근 급속한 발전과 수출품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한편 커피가 현재에도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이며 커피의 생산, 가공, 유통은 에티오피아 국민의 대다수의 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에티오피아의 빈곤 퇴치를 위한 대책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서 커피의 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 커피 산업의 부가가치화, 그것들을 통한 커피 전체의 무역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커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에서는 삼림 커피의 유전자원을 유지하고, 표본화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전자 자원이나 표본은 귀중한 천연자원이며 커피 신품종 개발과 그 상업화를 위하여 유용하다.

두 번째, 커피의 유전자 자원 유지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이익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자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 기후변화는 지역에 따라 커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뭄에 의한 수확량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커피나무의 병해충 악화나 새로운 해충의 번식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내건성품종 등의 신품종은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삼림 커피와 반삼림 커피(커피 총생산의 45% 차지)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삼림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커피 가격의 침체는 특히 가든 커피 소규모농가의 생계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격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 등을 통한 가든 커피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생산이 요구된다.

일곱 번째, 가공을 함에 있어서 수세식 커피의 가격이 비수세식에 비하여 비교적 높기 때문에, 비수세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우선 사항이다. 수세가공시설의 정비에는 수원(水源)확보가 필요하지만 가공에 사용한 후의 물이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수원까지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유통과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소규모농가는 커피 유통에 관한 지식이 부

족하다는 점이다. 커피의 마자루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자루를 수입할 경우에는 비용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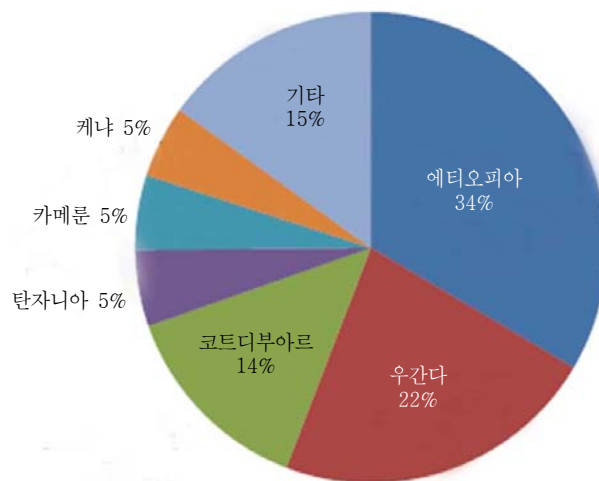
아홉 번째, 공급망에는 생산자, 중매인, 가공업자, 운반 업자, 수출업자 등 수많은 관계자가 존재한다. 식품안전의 철저를 위해서는 잔류 농약의 오염 방지나 품질관리를 공급망 전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열 번째, 이웃 아프리카 국가의 시장(북아프리카 국가 등)은 에티오피아산 커피에 있어서 매력적인 잠재적 시장이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마케팅과 기술(배전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열한 번째, 에티오피아 선물거래소는 생산자 수준까지의 이력추적제를 하고 있지 않아 생산자 지정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매입업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쌓는 것이 어렵고 생산자가 품질이 높은 커피를 생산하는 인센티브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열두 번째, 마케팅이 불충분하여 구입자를 찾지 않고 공정무역(fair trade)이나 유기인증, 지속가능한 인증을 취득하여 생산자는 인증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1 아프리카 커피 생산량의 국가별 내역(2009/10)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참고문헌

妹尾裕彦 2009 「コーヒー危機の原因とコーヒー収入の安定・向上策をめぐる神話と現実—国際コーヒー協定 (ICA) とフェア・トレードを中心に—」 『千葉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第57卷.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Rules on Statistics -Indicator Prices-” .
(<http://dev.ico.org/documents/icc-105-17e-rules-indicator-prices.pd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2008. “Agriculture Sector Review and Public Expenditure Review 2008/09”.

OECD. 2003.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n Tanzania: Focus on Mount Kilimanjaro”.

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 Bureau for Agricultural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 2005
“Final Report on Coffee Baseline Report”.

Tanzania Coffee Research Institute 2008 “Black Aroma - The Story of Tanzanian Coffee-”.

Tanzania Coffee Board and Tanzania Coffee Research Institute. 2010. “Tanzania Coffe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참고사이트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www.ico.org).

USDA (www.usda.gov).

Promar Consulting(www.promarconsulting.com).